

안녕하세요.

최상위권 커뮤니티 오르비 클래스 인강에서 여러분과 만나 뵈고 있는 국어 강사 김현종입니다.  
그동안 21년간 재수 종합반 강의와 또 대치동 국어 논술 전문 학원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힘들고 외롭게 독학하는 재수생이나 혼자서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 오르비 친구들을 위해  
수능 국어 3-7등급 탈출 칼럼을 써보고자 합니다.

보잘 것 없는 선생님이지만 도움 받는다 생각 드신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칼럼의 제목은 **[독학생을 위한 수능 국어]** 시리즈로 하겠습니다.

문학, 비문학, 문법, 작문.... 더 나아가 한권의 국어의 정석, 바이블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문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비문학에 특별한 비법이나 이론, 심지어는 독해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잘못된 접근법을 만들게 되고 기대를 만들게 됩니다.

비문학 풀 때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 2~3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지문은 잘 이해되는데, 어떤 것은 좀 힘들어요.... 등등  
국어에는 감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감이 부족해요... 등등

비문학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늘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2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7년 전에도 ... 어제도....

조사 하나 안 틀리고 어찌 그리 똑같은 고민들을 하는지...

하지만 결론을 얘기하자면 모두들 그 넘기 힘들다던 벽을 모두 넘어 만점,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한 마디로 국어 중증에 대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갑니다.

우선 출제자는 지문을 읽으려는 우리 수험생에게 항상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 모두 그냥 [dog]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게 뭐? 하면서 ....  
하지만 이 문구에서 비문학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출제 교수님 : 학생들아...지문을 먼저 읽으렴... 그런 다음 문제를 풀어라...우리가 수능 지문으로 이 지문을 선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주어진 시간 내로 내용을 분석하고 너의 지문 분석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충실히 답을 한다면 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독해 낼 것이다. 하지만 너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단다...

이런 내용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을 쓰는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이 지문을 먼저 읽고 물음에 답하라....라고 말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능력을 점검하는 시험입니다.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닙니다.

수능 전문가들의 측정영역에는 정확한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그 순서대로 했을 때 출제자들이 만든 문제가 빛을 발하고 능력 점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를 먼저 훑어라...그러면 문제나 선지 속에 너희가 본문에 봐야 할 특정 단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은 다음 머리에 품고 독해를 하면 별천지에 도달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단순히 문제와 선지에 있는 몇 개의 단어로 지문이 훤히 보인다 ?....

과연 그럴까요 ?

물론 훤히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일단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일부 친구들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편향적 독해를 하기 때문에 보기에 나온 핵심어가 이거니까... 또 선지에 나온 중요 단어가 이거니까.... 결국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조급증에 걸리게 됩니다. 당연히 수능 출제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판단한 의도대로 지문을 독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커지면 암이 되는 거고요... 국어의 암..... 읽고 또 읽고...그리고 또 읽고.....최종적으로 시간 모자라고....**

이런 식으로 주어진 제시문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재단해서 읽어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지문 자체 내의 유기적 관계를 모두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읽었던 지문 또 읽게 되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문단씩 읽고 난 뒤에 후우... 하고 한숨쉬고 (간신히 읽었다....하면서...) 또 한 문단 읽고 한숨... 3문단쯤 가서 다시 얼굴 부르르 흔들고 다시 첫 문단부터 또 읽고.....악순환만 계속 될 뿐입니다. 그것은 이도 나지 않은 아이가 남들처럼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 고기를 빨고만 있는 격입니다. 이런 사소한 자세가 비문학을 ..어렵게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3-7등급 대부분은 자기 독해의 자세가 잘 못 된 줄을 잘 모릅니다.

그건 바로 비법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맹신 때문에 여기 저기 팔랑귀를 달고 다닐 뿐입니다.

이 인강 저 인강, 이 학원 저학원.... 비문학은 누구 인강이 최고인가요 ?...

마달을 3정독 하면 정말 되나요 ?...누구누구의 나비만세를 보면 정말 되나요 ?..

그렇게 찾아 다닌 지 일 년이 지났는데도 머리를 쥐어짜면서

비문학 때문에...문학 때문에.... 국어 때문에....미치겠다고 또 괴로워 합니다.

그렇게 한달, 두달....심지어 일년....이년.... 비문학을 시작한지 일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선생님 비문학 어떻게 하죠 ?.... 이려고 있으면 선생님도 답이 없습니다.

자꾸 얘기가 슬슬 빠져나갑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물론 최고 등급의 학생이라면 지문을 가지고 놀 정도의 학생이라면 문제를 먼저 보고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등급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비추입니다.

왜 비추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비문학 지문 하나에 다음처럼 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2.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저 문제들을 보기 선지까지 대충 읽어도 최소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소요됩니다.

그냥 빠르게 훑어 봐도 1분입니다. 비문학 지문 5개라고 한다면 훑어보는 데만 4-5분입니다. 4-5분이면 지문하나 푸는 시간과 맞먹습니다.

**시간이 모자른다고 말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문제 읽고 지문 읽고 또

지문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보는 학생들은**

자신이 지문 속에서 읽어야 할 것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문을 먼저 읽고 지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친구라면 산만하고 복잡하게 문제와 지문을 왔다갔다 할 필요없이 간단하게 읽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또 객관적 판단도 많이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수능 점수 하락으로 내닫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하죠 ?

=> 바로 필자가 무엇에 대해 글을 썼는지 글의 대상을 찾아야 한다 !!

==> 그러면 대상은 어디에 있나요 ?

=> 첫문단 첫째줄에 있단다. !!

==> 또 찾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

=> 각 문단 첫째줄이 또 중요하단다... 이것만 지켜주면 비문학은 끝난단다...!!

2014 기출지문입니다. 이 지문이 어렵다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해 온 김에 설명 드립니다. 앞으로 지문 설명할 때 1.2.3.4 숫자는 문단에 나오는 줄수입니다. (첫 줄, 둘째 줄...)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흠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1줄을 보시면 이 글의 필자는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CD 드라이브가 주어이고 그 물체의 간단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CD는 이러이러한 기계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글의 대상입니다.**

이 첫문단 첫째줄이 바로 이 글의 전체 대상입니다.

이것=CD 드라이브를 위해 둘째문단, 셋째문단 ..... 존재하는 겁니다.

2줄을 보면 대상인 CD드라이버에서 CD의 기록면...즉 우리 말로 씨디판... 그리고 나머지는 씨디판의 부분들...랜드와 피트... (이 정도 정리가 안되면 답이 없음)를 얘기합니다. 즉, CD 드라이브의 구성요소 중에서 흔히 씨디판.... 됐죠 ?...너무 자세해서 지루한가요 ? 그래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3줄을 보면 계속 씨디판 얘기...이번에는 트랙, 트랙은 기본적으로 트랙=(랜드+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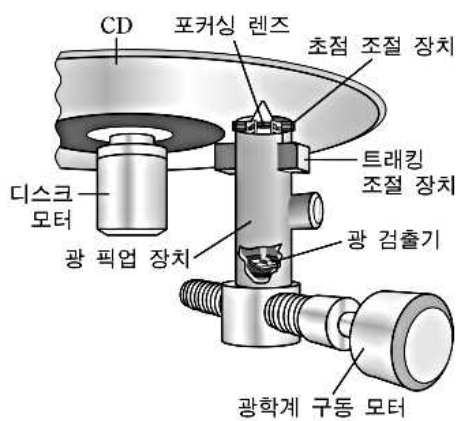
4줄을 보면 계속 씨디판 얘기 ... 결국 트랙(랜드+피트)과 트랙(랜드+피트)...그러면 트랙과 트랙 사이는 랜드.... (랜드와 피트를 이해했다면 다음 그림의 내용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begin{array}{ccc}
 [\text{트.....랙}] & + & [\text{트.....랙}] \\
 \text{랜드 + 피트} & (\text{랜드}) & \text{랜드 + 피트}
 \end{array}$$

==== 여기까지가 첫문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다. 제일 먼저 글의 대상이 노출되었습니다. 글의 대상은 CD드라이브 기계입니다. 그 중에서 첫문단에서는 그 기계의 CD판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대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앞으로도 계속 CD가 나오겠다 .....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문을 분석 정리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수능 시험입니다. 대상을 놓치는 것이 독해의 최대의 적입니다. 산만한 것이 바로 그 대상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문단 봅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문단이 바뀌면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각 문단 첫줄을 찾아라 !!**

왜 각 문단 첫 줄을 찾아야 하는가 ?

예를 들어 둘째 문단은 첫 문단의 대상을 뒷받침하면서 둘째 문단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1 문단이 가장 큰 대상인 CD 드라이브라면

2 문단부터는 그 대상을 뒷받침하는 문단이기 때문입니다. 또 각 문단의 첫줄도 그 각 문단에서 작은 대상의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 줄을 보면 CD드라이브의 3가지 구성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 쉽게 말하자면 이 글은 첫 문단에서 과일을 얘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과일에는 사과 배 포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 2 줄을 보면 디스크 모터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사과의 특징을 말하는 거죠...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 3 줄을 보면 광픽업 장치가 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배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여기에는 좀 부속 장치가 있으니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레이저로 씨디에 쏩니다. 반사된 레이저를 광검출기가 받습니다.

\* 4줄을 보면 계속 광픽업 장치를 더 세분화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구조화하면 됩니다. 광픽업 장치 속에 광검출기가 하는 일, 포커싱 렌즈가 하는 일...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5 줄을 보면 광학계 구동모터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3 덩어리중에서 모터들은 단순합니다. 결국 모터 빼고 한 덩어리만-광픽업장치만 중요합니다.)

**=====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첫 문단에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읽고 있다면 필자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모른 채 읽는 거와 똑같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그 상대의 속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

**===== 다시 정리합니다. 첫문단에서 CD 기계 중에서 CD판 얘기했습니다. 둘째 문단은 그 기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3 덩어리로 설명하고 있고 간단한 부분도 있지만 복잡한 부**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3 덩어리로 이루어지고 각각 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 봅시다.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문단이 바뀌면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각 문단 첫줄을 찾아라 !!**

1 줄을 보면 무슨 얘기 하고 있죠 ? CD가 튼다는 표현 아시죠 ? 판이 튼든, 기계가 튼든... 데이터 오류가 생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 문단 첫줄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 ① 진동으로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 ②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 못 읽을 수 있다.....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두 개 제공합니다.

이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이 글 독해가 어려워집니다.

데이터 오류인데 갑자기 트래킹 조절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3-7등급은 열심히 정리만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첫줄에서 오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류 수정방안도 2가지입니다.



2 줄을 보면 그러면 오류를 막으려면 3덩어리 중에서 2번째 광픽업장치를 손봐야 하는 겁니다. 모터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 ① 트랙을 벗어났으니 고치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를 손봐야 합니다. (편차 조정)
- ② 초점이 벗어났으니 고치려면 초점 조절 장치를 손봐야 합니다. (편차 조정)

3 줄을 보면 편차 조정은 광 검출기가 한답니다.

4 줄을 보면 광 검출기의 구성과 배치를 얘기합니다.

5줄을 보면 조사 되는 빛의 양과 검출된 양을 비교하여 4영역의 값으로 피트, 랜드 구별

**===== 이번 문단에서 첫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문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상실하니 지문이 어려워지고 문제와 지문을 왔다갔다 방황하기 시작해서 시간도 없는데 여러분은 열심히 정리와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단 봅시다.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문단이 바뀌면 우리는 또 외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각 문단 첫줄을 찾아라 !!**

- 1줄을 보면 광선이 트랙의 중앙이면 네 영역값이 동일..(트랙이 랜드와 피트가 생각납니다.)
- 2줄을 보면 피트니까 트랙 얘기입니다. 피트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그 옆에 있는 랜드에 더 빛을 쏘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입니다. 하지만 못 찾은 학생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검출기는 또 검출해 내겠죠...
- 3줄을 보면 당연히 트랙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트래킹을 조절하여 고쳐주면 됩니다.



4줄을 보면 오른쪽 왼쪽은 여러분이 하세요....^&^

==== 이번 문단은 오류 첫 번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부연 상술 문단입니다. 이미 나온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문단입니다. 이미 나온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문단입니다. 이미 나온 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문단입니다.

= 이미 나온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한 것을 부연, 상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 오류 부분이 두 군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트랙 수정하는 거 나왔는데 ...이제 뭐가 나올지 아시겠죠 ?

이처럼 독해는 전체 대상을 중심으로 필자가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지를 알아 나가야 긴 글이 아주 짧아집니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 또 외칩시다. 각 문단 첫째줄...

\*\*\* 한편 = 사과 배 포도 얘기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과 배 얘기했다면 한편 다음에는 포도 얘기입니다. 앞에서 오류 두 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만 얘기했다면 나머지는 뻘한 겁니다.

1 줄 = 역시 초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트랙이 아니니까 피트나 랜드는 안 나오겠죠 ? 전후 좌우로 광선의 모습이 변합답니다.

- 2 줄 = 조사된 광선모양이 가까우면 전후로 길어집니다. 출력값도 당연히 커지고
- 3 줄 = 멀어지면 좌우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당연...
- 4 줄 = 전후합과 좌우합 값 구해서 그 차이만큼 초점 장치를 이용해서 렌즈 위치 바꾸면 됩니다. 멀게 가깝게 조정해 주면 됩니다.

==== 이상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꼼수의 독해가 아니라 필자가 말하고자 했던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관점을 파악하면서 구조를 분석해보았습니다.

문제도 마저 풀어볼까요 ?

**28.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 역시 윗글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독해하고 오라는 말입니다.

- ①번 볼까요 ? 초점 조절 장치죠 ? 이것은 수정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초점이니까 렌즈...
- ②번 포커싱 렌즈가 하는 일은 2문단에 나옵니다. 저 위에서도 설명...
- ③번 광검출기의 출력값으로 트랙 조절하는 겁니다. 아시죠 ?
- ④번 모터는 돌리거나 가운데서 밀고 나오는 애들 둘인데 ...회전은 디스크 모터가... 답입니다.
- ⑤번 쏘고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

## 2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 되겠군.
-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윗글을 이해한 내용문제는 여러분이 푸는 문제가 아니라 윗글을 이해한 친구나 전문가가 5명 나옵니다. 그들이 제각각 이해한 지문에 대해 한마디씩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듣고 있다가 OX만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OX를 하는 수험생들은 여러 개의 복합질문이 나올 때 잘 끊어 읽으면 됩니다.

- ①번은 끊어 읽을 게 없습니다. 광학 모터가 하는 일.... 그냥 나라에서 주는 보기입니다.
- ②번도 끊어 읽을 게 없습니다. 그림보면 다 밑에서 합니다.
- ③번도 끊어 읽을 게 없습니다. 랜드와 피트 특징 알면 다 풀립니다. 랜드가 더 많은 반사...
- ④번을 잘 보세요. 이제 끊어 읽어야 합니다.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렌즈니까 트랙과는 다르죠 ? 마지막 문단에서 가까우면 전후와 멀면 좌우라고 했죠 ? ④번 친구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후영역을 고친다고 말했다면 반드시 초점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조건을 달아줘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 왜냐하면 멀 경우에는 좌우 출력값 얘기도 해야 하니까요 .....그것도 보정하는 거니까....
- ⑤ 전후좌우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어렵다던 역대급 '악마' 의 문제로 갑니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영역	전	후	좌	우
상태 1의 출력값	2	2	3	1
상태 2의 출력값	5	5	3	3

-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 ②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 ③ <상태 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 ④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 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 ⑤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 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①번 볼까요 ? 광검출기는 보기 박스 내용입니다. 산수니까 지나갑니다. 8<16

②번 보면 초점 조절은 5문단입니다. 보기 선지를 보고 빨리 몇 문단 얘기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독해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그런데 초점 조절이라면 좌우합의 값이 길어지든지....또는 전후합의 값이 길어지든지....해야 하는데 두 합은 일정합니다. 이것은 결국 초점 조절이 아니라 트래킹이라는 것이죠... 결국 네 영역의 값이 동일하고 좌우 값이 다른 경우... 네 영역이 다 동일해야 하는데 좌가 2에서 하나 더 보태져서 3이 되었습니다. 결국 트래킹이니까 4문단입니다. 그것은 좌측으로 치우쳐서 그런거죠... 상태 2는 네 영역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킹은 아니고 전후 합의 값이 길어졌으니 초점이 구동되어야 합니다.

③번 보면 ②번에서 설명했듯이 트래킹 구동되어야 합니다. 좌가 하나 더 많으니까 트랙을 옮겨줘야 합니다. 따라서 구동 ..... 트래킹은 네 영역의 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태 2는 값이 다름

니다. 또 전후 값도 같습니다. 그러니 트래킹과 관련 없습니다.

④번 보면 상태 1은 좌우 값 차이니까 트랙... 맞습니다.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더 높습니다. 상태 2는 가운데 맞습니다. 단지 초점이 틀릴 뿐입니다.

⑥번 보면 렌즈이야기입니다. 5문단입니다. 5문단에서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언급 따라서 상태 1은 조절할 필요가 없고 상태 2는 멀게... 답입니다.

상태 1은 위에서 말했듯이 트래킹이고 상태 2는 초점 조절장치입니다.

이처럼 지문을 정확하게 읽으면 각 보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이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성적이 나오지 않는 3-5-6 등급은 문제 유형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문 읽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문을 제대로 읽으려는 노력에 시간투자하면 아주 빨리 낮은 등급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비문학 지문이나 문제를 푸는 지극히 개인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선생님 방법만이 우선이고 최고라는 말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단지 선생님이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비문학 2, 3 시리즈는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요. 욕이나 먹지 않았으면 합니다.

질문도 좋고 쪽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기꺼이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해 드리겠습니다.

또 대치동에 사는 친구들이라면 언제든 지나가며 선생님한테 한번 놀러오세요.

차 한잔 마시며 국어 고민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이상 클래스 국어 강사 김현종이었습니다.

비문학 1개월 / 문학 1.5개월 / 화법-작문-문법 1개월 / 실전 문제 풀이 0.5개월  
4개월 후에 3-5등급 ==>> 1등급으로 상승합니다. 수업문의 언제나 환영합니다.

[komusso@hanmail.net](mailto:komusso@hanmail.net) / 카톡아이디 komusso / 02)2051-2727 대치 이룸학원